

SDGs 최종 지표 내용과 이행의 실제: 환경보호

홍은경 (KOICA 연구개발팀 선임연구원)¹⁾

목차

- I. 서론
- II. 지속가능발전 정의 및 논의 과정
- III. SDGs의 환경분야 내용
 - 1. SDGs와 환경
 - 2. SDGs 환경세부목표 및 지표
 - 3. 환경영역 목표
- IV. 결론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1) ·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기후변화 정책 및 평가 박사, Ph. D.(Interdisciplinary Ph. D. in Climate Change Policy and Assessment)
· 전 Alaska Center for Climate Assessment and Policy 연구원/ shireen@koica.go.kr 031-740-0565

초록(Abstract)

2015년 9월, 국제사회는 향후 15년간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의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 채택하였다. 채택된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다루지 않은 기후변화 및 자연보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해양자원 및 오염문제, 산림이슈, 사막화, 토지 황폐화 등과 같은 환경주제에 대해 7개의 목표로 구분되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17개 목표 중에 7개 목표가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환경 이슈가 차지하는 중요정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SDGs에서 제시된 환경 관련 목표 고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환경이슈를 파악하고 이의 세부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지표를 고찰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는 7개 환경목표의 세부목표 대부분이 모호한 표현과 서술적이 묘사가 많아 그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행수단과 이행목표가 혼합되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로 제시된 세부목표를 통합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세부목표의 수정과 함께 이를 모니터링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데 특히 환경 분야에서 티어 2와 3의 분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SDGs는 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개발관련 제도와 방향을 이끄는 주요 규범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SDGs는 양적으로 이슈 영역이 팽창한데 비해, 질적으로 이를 세분화하는 세부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지표에 대해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SDGs가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규범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SDGs 세부목표와 이행지표에 대한 재검토와 재작업이 요구된다.

I. 서론

2015년 9월, 국제사회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 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 이를 채택하였다. 이 SDGs는 향후 15년간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의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SDGs 세부목표 이행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글로벌 지표 선정 작업은 2015년 3월, 제 46차 유엔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 이하 UNSC)에서 창설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에 관한 기관 간 전문가 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 이하 IAEG-SDGs) 주도로 작성되었는데, 지난 2016년 3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 47차 UNSC는 SDGs 글로벌 지표를 230개²⁾로 합의하였다.

SDGs 의제수립과정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이후(2015년 이후)의 개발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UN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Post-MDGs(Post-2015) 설정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201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 지속가능발전총회(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UNCSD 혹은 Rio+20) Rio+20의 보고서와 결의안에서 시작된 SDGs 수립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지현, 2014; 임혜숙, 2015). 즉 Post-2015 의제와 SDGs 수립은 처음에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었으나, 두 의제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가 서로 관련됨에 따라 두 개발의제를 하나의 개발의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임혜숙, 2015) 2014년 9월 UN 총회에서 SDGs-OWG(Open Working Group)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두 프로세스는 SDGs 하나로 수립이 되었다.

2015년 9월 채택된 SDGs에 나타난 환경이슈는 아젠다 21, 코펜하겐 협약을 바탕으로 Rio+20에서 논의된 환경이슈가 세분화되어 7개의 목표에 확장되어 강조되고 있다(임혜숙, 2014). 즉 MDGs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졌던 환경관련 이슈들이 SDGs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졌다. 총 7개 목표 61개 세부목표로 확장된 환경 관련 목표는 크게 ① 자연/자원과 관련된 환경지속성, ② 도시화와 식수위생, ③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포함하는 사회 환경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김지현, 2014).

2) 총 지표의 합계는 241개이나 중복지표를 제외하면 230개임.

SDGs의 17개의 목표 중 환경과 관련된 7개 목표는 ‘① 목표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② 목표7: 지불가능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③ 목표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④ 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보장, ⑤ 목표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⑥ 목표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⑦ 목표15: 육상생태계 보호와 복원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이다.

본 연구는 SDGs에서 7개 목표로 확장되어 강조되고 있는 환경 관련 목표 고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환경이슈를 파악하고 현재 제시된 세부목표와 이행지표가 향후 15년간 전 지구적 환경규범으로서 현재 문제를 잘 대변하고 해결책을 효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의와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개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SDGs 수립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의제수립과정의 두 줄기 중 Rio+20 축으로 형성된 SDGs 수립 과정 및 논의 절차에 초점을 두었다. 3장에서는 SDGs에서 환경영역의 목표의 구성 및 내용, 그리고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설명한 뒤 환경영역 목표와 세부목표, 그리고 지표를 살펴보고, 제시된 세부목표와 지표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지표의 방향 및 보완점에 대해 강조하였다.

II. 지속가능개발 정의 및 논의 과정

환경과 관련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는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환경(Environment)’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국제회의로 이 회의에서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이하 UNEP) 설치가 결정되고 환경적 위협에 맞서 전 세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스톡홀름 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이 채택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개발이 처음 정의된 것은 18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하 WCED)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라고 보이는데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개발³⁾”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1992년에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하 UNCED)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⁴⁾” 개념을 주창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을 채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27개 ‘리우 원칙(Rio Principles)’을 제시하고, 지구환경보전행동계획인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1992년 이후 20년이 지난 2012년에 또다시 리우에서 개최된 UNCSD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관점의 녹색경제(green economy)와 이를 위한 합의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채택하고 SDGs 도입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15년 9월 제 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SDGs는 채택되어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인류가 나아가야할 방향성 제시하게 되었다.

III. SDGs의 환경분야 내용

1. SDGs와 환경

SDGs 17개 목표 169개 세부이행과제는 인권의 실현과 양성평등 및 지속가능발전의 세 개의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 있게 통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EI, 2015). SDGs 17개 목표를 주제별로 분류할 경우 기관과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분류되기도 하는데 김지현(2014)과 KEI(2015)는 SDGs를 ① 인간 중심의 성장목표(경제성장)를 중심으로 ② 빈곤, ③ 사회영역(사회발전), ④ 환경영역 ⑤ 이행수단과 관련된 목표영역, 이렇게 크게 5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있다(〈표 1〉 참조).

3) 주: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4) 주: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표 1〉 SDGs의 주제별 분류

주제		SDGs 목표(세부목표 수)
빈곤 (2목표, 15세부목표)		1. 빈곤퇴치(7) 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8)
사회발전 (5목표, 53세부목표)	보건	3. 보건증진(12)
	교육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10)
	여성	5.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9)
	사회/안보	10. 불평등 해소(10) 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12)
환경 (7목표, 61세부목표)	자연/ 자원환경	7. 에너지(5) 13. 기후변화(5) 14. 해양생태계(10) 15. 육상생태계(12)
	정주환경	6. 물과 위생(8) 11. 도시와 인간정주(10)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11)
경제성장(2목표, 20세부목표)		8. 경제성장과 일자리(12) 9. 인프라와 산업화(8)
이행수단 (1목표, 19세부목표)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19)

출처: 김지현 (2014, p.10), KEI (2015) 재구성

지난 15년간 국제사회는 범지구적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된 M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가시적인 효과도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DGs는 가장 시급한 빈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MDGs 목표 중 환경영역은 목표 7인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에서만 다루고 있는 등 환경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김태균 · 이성훈 · 허태욱 · 황원규, 2015). SDGs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SDGs에서 환경부문 목표는 7가지로 확대되어 종합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상기 〈표 1〉가 보여주듯 SDGs에서 환경분야 목표는 전체 17개 목표 중 7개 목표로 SDGs 안에 환경목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지난 MDGs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다루어졌던 환경관련 이슈들이 SDGs에서는 핵심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김지현, 2014). 제시된 환경분야 7개 목표는 목표6(물과 위생), 목표7(에너지), 목표11(도시와 인간정주), 목표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13(기후변화), 목표14(해양생태계), 목표15(육상생태계)로서 이 각각의 목표들은 Rio+20에서 논의된 환경이슈가 세분화되어 SDGs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관련 목표들을 다시 구분하면 크게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자원, 육상생태계를 내용으로 하는 자연/자원과 관련된 환경지속성과 물과 위생, 도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내용으로 하는 인간정주와 관련된 환경지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표 1〉 참조).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DGs는 MDGs에서 논의된 환경이슈들이 세분화되어 구체화되었는데 아래 <표 2>은 MDGs에서 나타난 환경(세부)목표가 SDGs에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지속가능발전원칙을 정책 및 계획에 내재화하는 내용의 7.a.의 경우 내용상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SDGs와의 목표는 없으나 ‘지속가능발전원칙의 정책으로의 내재화’라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SDGs에 나타난 환경분야 모든 목표가 이를 추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생물다양성 감소를 목표로 한 7.b.의 경우 SDGs 목표 15(육상생태계)에서 그 내용을 세분화하여 발전시키고 있으며(<표 3> 참조), 식수와 기초위생환경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7.c.의 경우 MDGs에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SDGs 목표 6(물과 위생)에서 새로운 세부목표와 함께 다시 제시되고 있다.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향상을 목표로 했던 7.d.의 경우에도 이미 MDGs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SDGs 목표 11(도시와 인간정주)에서 다시 새로운 목표와 함께 제시되었다.

<표 2> MDGs 목표 7의 세부목표와 SDGs와의 연계

목표 7.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		SDGs와의 연계
세부 목표	7.a. 지속가능발전원칙을 국가 정책 및 계획에 통합시키고 환경자원 손실을 복원	목표 6,7,11,12,13,14,15
	7.b.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킴	목표 15 (육상생태계)
	7.c.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임	목표 6 (물과 위생)
	7.d.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을 현저하게 향상시킴	목표 11 (도시와 인간정주)

출처: 저자작성

2. SDGs 환경세부목표 및 지표

지난 2016년 3월, 제 47차 유엔통계위원회는 230개의 지표선정을 완료하였다. 지표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전세계 각국은 국내이행전략을 수립하게 되며, 유엔은 ‘SDGs 이행보고서’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등을 통해 SDGs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지난 4월에 열린 IAEG-SDGs에서는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를 티어(Tier)체제로 구축하여 각각의 지표의 티어를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티어 1은 방법론이 구축되어 있고 데이터 이용 가능한 지표, 티어 2는 방법론이 구축되어 있으나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표, 티어 3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이 개발되지 않은 지표를 말한다(<표 3> 참조).

〈표 3〉 티어체계(Tier system) 내용

단계	내용
Tier I	개념적으로 분명하고, 방법론과 기준이 수립되어 있어 국가별로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생성되는 지표
Tier II	개념적으로 분명하고, 방법론과 기준이 수립되어 있으나 국가별로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생성되지는 않는 지표
Tier III	방법론과 기준이 수립되지 않고 개발 중이거나 시험 중이 지표

출처: UN (2016, p.2) 재구성

〈표 4〉 각각의 목표와 티어체계

목표 Ti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
I	3	8	15	3	3	6	4	10	8	4	2	1	0	2	6	9	15	99	41.1%
II	4	2	7	4	4	0	0	6	1	0	7	2	2	0	1	7	2	49	20.3%
III	4	4	3	2	6	5	2	1	3	5	6	9	4	8	5	6	5	78	32.4%
미정/ 다중	1	0	1	2	1	0	0	0	0	2	0	1	1	0	2	1	3	15	6.2%
합계	12	14	26	11	14	11	6	17	12	11	15	13	7	10	14	23	25	241	

출처: 저자작성

〈표 4〉은 SDGs 각각의 목표와 그들의 티어체계를 보여준다. 전체 241개 지표 중 티어 1로 분류되어 있는 지표는 전체의 41.1%이며 데이터 확보와 방법론에 대해 아직 논의가 필요한 티어 2, 3단계 지표를 합하면 이미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절반 이상의 지표가 아직 논의를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하고 또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아래 〈표 5〉는 전체 목표 중 환경관련 목표와 관련된 티어별 지표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목표와 비교해 볼 때 환경관련 목표 중 티어 1은 27.6%로 이미 데이터가 확보되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는 SDGs 전체 비율(41.1%)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다. 티어 2와 3을 합하면 67.1%로 SDGs 전체 비율(52.7%)보다 훨씬 큰 수치로 환경관련 지표에 대해 재검토 및 방법론상의 논의 특히 더 많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13개 지표 중에 오직 한 개만이 티어 1 지표이며, 목표 13(기후변화)의 경우 티어 1 지표는 한 개도 없는 반면 7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티어 3 지표로, 목표 12, 13은 지표에 있어서 추가적 논의가 특히 많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표 5〉 환경관련 목표와 티어체계

목표 Tier	6	7	11	12	13	14	15	합계	비율 (%)
I	6	4	2	1	0	2	6	21	27.6%
II	0	0	7	2	2	0	1	12	15.8%
III	5	2	6	9	4	8	5	39	51.3%
미정/ 다중	0	0	0	1	1	0	2	4	5.3%
합계	11	6	15	13	7	10	14	76	

출처: 저자작성

제 I 장

개발
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3. 환경영역 목표

1) 목표 6: 물과 위생

목표 6은 이행수단 2개의 목표를 포함한 8개의 세부목표와 1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표 2〉 참조), 물과 위생 목표는 기존 MDGs에도 나타나 있는데, MDGs 목표 7 중 3번째 목표에 해당하며 SDGs는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MDGs 7.c 세부목표는 크게 식수와 기초 위생 상태로 나뉘는데 MDGs 성과를 보면, 식수의 경우 전 세계 인구 중 개선된 식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1990년 76%에서 2015년 91%로 이는 MDGs의 목표를 달성한 수치이다. 반면에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비율 변화는 1990년 전 세계 인구 54%에서 2015년 68%로 그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MDGs 목표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였다(UN, 2015:58). MDGs 달성을 통해 환경지속성(식수와 기초 위생상태)이 개선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은 식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지역은 기초 위생시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UN, 2015). 이는 여전히 개도국 지역이라 여겨지는 지역은 식수와 기초 위생상태 개선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MDGs의 식수와 위생시설 목표 내용을 보면 MDGs는 식수와 위생시설의 서비스 보급의 보편적 접근에만 치중한 나머지 위생형태, 보급에 있어서 평등(여성 및 아동 같은 취약계층에 보급), 식수와 위생시설의 모니터링 및 안전성에 대한 고려 등은 배재되어 있는 듯 하며 이에 대한 한계점이 SDGs 목표6에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CSU and ISSC(2015)는 SDGs 목표 6에서 세부목표 6.4, 6.5, 6.6 이 세 개의 목표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으며⁵⁾ 6.a. 목표는 SDGs 목표 10(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완화)에, 6.b. 목표

는 SDGs 목표 16(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에 통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표의 경우 티어 1이 6개, 티어 3이 5개로 물과 위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의 방법론과 데이터의 가용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많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각각의 목표와 명확한 관련이 있는 측정가능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각 국가데이터가 없어 글로벌데이터로 사용하게 될 경우 각 국가의 지표선(baseline) 설정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5) ICSU and ISSC(2015)는 세 개의 세부목표를 '2030년까지 생태계를 포함한 수자원 보호,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수자원 사용과 거버넌스를 통해 물 부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표 6〉 SDG 목표 6: 물과 위생

목표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DATA 기관
세부목표	지표	Tier
6.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비율	1
6.2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여성과 소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평등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노상배변을 증식	6.2.1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 등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비율	1
6.3 2030년까지 오염 감축, 위험 화학약품 및 유해물질 투기 근절과 방출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 절반 이하로 감소 및 재활용 및 재사용률을 증가시켜 수질 개선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하수 비율	3
6.4 2030년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물 사용의 효율성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담수의 지속가능한 취수와 공급을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사람의 수를 상당히 감축	6.3.2 양호한 주변 수질을 갖춘 수계 비율 6.4.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사용 효율 변화	3 3
6.5 2030년까지 적절한 경우 초국경 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된 수자원 관리를 이행	6.4.2 물 스트레스 수준: 가용한 담수자원 비율로서의 담수취수 6.5.1 통합물관리(WFRM) 이행 정도 (0-100)	1 1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암반 및 호수를 포함한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체계를 가진 초국적 유역비율 6.6.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3 3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은 포함한 물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 및 개도국에 대한 역량구축 지원을 확대	6.a.1 정부 지출계획에 포함되어있는 물과 위생시설 관련 ODA 총액	1
6.b 물 및 위생 관리 개선에 있어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	6.b.1 물과 위생시설 관리에 관한 운영정책과 지역사회 참여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지방행정조직의 비율	1

출처: 김지현(2016, 발간예정), UN(2016)을 참고하여 재구성

2) 목표 7: 에너지

에너지 목표는 2개의 이행수단목표를 포함한 5개의 세부목표와 6개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표 7> 참조). 에너지는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다른 개발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에너지는 생산적 목적, 성평등, 교육, 산업 개발, 보건 등의 전 인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에너지는 경제발전 뿐 아니라 전 분야 인간발전을 주도하면서 전 부문과 전 국가에 걸쳐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는 MDGs에서는 다루이지 않은 새로운 분야라고 하겠는데 다만 MDGs 목표 7의 4번째 세부목표(7.d.)인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차원에서 에너지의 보편적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확대해석해 볼 수 있다(김태균 외, 2015). 목표 7의 내용은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효율성 등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는 UN 사무총장이 2011년부터 주도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ustainable Energy for All: SE4ALL)’ 이니셔티브 달성 목표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3가지 에너지 목표⁶⁾와 내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에너지 문제의 해결(혹은 에너지 목표 달성)은 삶의 질 향상, 에너지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 에너지 수급확보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여러 가지 삶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홍은경, 2013).

세부목표를 자세히 보면 5개 목표 중 앞의 세 개의 목표는 SE4ALL 과 내용적으로 일치하므로 지표에 있어서도 이미 상용되는 데이터를 쓸 수 있으므로 바로 적용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가령 7.1.에서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현대적인 에너지(affordable, reliable and modern energy)’에 대한 정의와 7.2.에서 ‘상당한(substantially)’에 대한 정의 및 기준, 7.3.에서 ‘에너지효율개선(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에 대한 정의가 그것이다. 두 개의 이행수단목표에 대해서는 그 모니터링 지표가 둘 다 티어 3에 속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되나 그 내용을 7.1~3에서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기에 이 두 개의 세부지표는 삭제되어도 무방하다고 보기도 한다(ICSU and ISSC(2015)).

6) 목표 1.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의 접근보장(Universal access to modern energy services), 목표 2. 에너지 효율성 향상 두 배 증가(Doubling global rate of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목표 3. 글로벌 에너지 믹스에 대한 재생에너지 비율 두 배 증가(Doubling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global energy mix)

(표 7) 목표 7: 에너지

목표 7: 지불가능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세부목표	지표	Tier	DATA 기관
7.1 2030년까지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접근성을 가진 인구비율	1	WB
	7.1.2 청정연료와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	1	WHO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증대	7.2.1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1	WB/UNSD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두 배 증대	7.3.1 일차에너지와 GDP 차원에서 측정된 에너지 집중도	1	WB/UNSD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진보된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	7.a.1 천연물 약정을 목표로 2020년부터 매년 동원되는 금액	3	OECD
7.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중소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서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모 두에게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선	7.b.1 GDP의 비율로 측정되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 및 지속가능개발 서비스인프라와 기술을 위한 금융거래 해외직접투자 규모	3	IEA

출처: 김지현(2016, 발간예정), UN(2016)을 참고하여 재구성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3) 목표 11: 도시

목표 11은 이행수단 3개의 목표를 포함한 10개의 세부목표와 1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 11은 앞<표 2>에서 보이듯이, 기존 MDGs에도 나타나 있는데 MDGs 7목표 중 4번째 목표(4.d.)에 해당하며 SDGs 목표 11은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서 2014년 동안 3.2억의 빈민 거주민들이 개선된 물, 위생, 주거지 등의 시설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을 현저하게 향상’이라는 MDGs 목표치는 이미 상회한 수치이다(UN, 2015).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개도국의 주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문제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 도시화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51%를 넘어섰고, 또한 2050년에는 66%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도시화 증가 현상이 주로 개도국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데 있다(UN, 2014). 현재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화가 개도국에서 심화됨에 따라 개도국의 주거수준은 악화되며 주거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빈민가가 증가하고 그들의 주거 수준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SDGs 목표 11은 인구증가와 개도국 도시화 심화배경과 함께 설정되었는데 MDGs가 인구과도현상과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다루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반면 SDGs 목표 11은 인류가 거주하는 도시를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재해석하여 이 거주지는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DGMUN, 2015). 또한 세부목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목표들은 주거지역, 교통수단, 도시화, 문화/자연적 문화제, 그리고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표의 경우 티어 1이 2개, 티어 2가 7개, 티어 3이 6개로 목표 11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의 방법론과 데이터의 가용성 여부에 대한 논의, 용어의 정의와 범위 측면에서 내용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15개 지표 중 티어 1이 오직 2개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표에 대한 논의가 특히 요구되는 목표인데 몇 개의 지표의 경우는 지리공간정보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의 보완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예: 11.3.1. 인구성장비율 대비 토지 소모 비율).

(표 8) 목표 11: 도시

세부목표	목표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 조성		Tier	DATA 기원
	지표	지표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선		11.1.1 빈민가, 무허가 또는 적절하지 않은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도시인구 비율	1	UN Habitat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도로안전을 개선하여, 모두에게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성이 좋으며 지속가능한 교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		11.2.1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	2	UN Habitat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 거주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		11.3.1 인구성장비율 대비 토지소모비율 11.3.2 정기적이고 인구구조비에 맞추어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구조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시의 비율(%)	2 3	UN Habitat
11.4 세계 문화·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 강화		11.4.1 역사적 유산의 종류별 (문화, 자연, 복합, WHC 지정), 정부의 수준별 (국가, 지역, 지방자치)지출종류별(운영경비, 투자), 민간자금 종류별(헌물기증, 민간비영리부문, 후원) 1인당 지출액	3	UNESCO-UIS
11.5 2030년까지 비교총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한 각종 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사상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구를 대폭 축소하고 국내총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5.1 인구 100,000당 재난의 영향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수	2	UNISDR
11.6 2030년까지 대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도시의 부정적인 1인당 환경 영향을 감축		11.5.2 주요 인프라에 대한 재난피해 및 기초서비스 붕괴를 포함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1.6.1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 중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합하게 최종 처리되는 도시 고체폐기물의 비율	2 2	UN Habitat, UNSD UNISDR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 제공		11.6.2 도시내 (인구가중치 적용) PM2.5 및 PM10 등으로 표기되는 연중 미세먼지 평균 수준 11.7.1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 별 도시 내 대중에 개방되어있는 공공공간의 평균 비율 11.7.2 성별, 연령별, 장애의 정도 및 발생장소 별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또는 성적 추행의 피해자 비율	1 2 3	WHO UN Habitat UNODC
11.a 국가적·지역적 개발계획 강화를 통해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계성 강화를 지원		11.a.1 인구증가(예측과 소요자원을 통합하여 수립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이행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도시규모별))	3	UN Habitat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효용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재난 회복력을 위한 통합된 정책·계획을 채택·이행하는 도시와 정주지의 수를 상당히 증대하고, 2015-2030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체계(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전체적인 재난위험관리를 개발·이행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2015-2030 센다이 프레임워크』과 궤를 같이 하는 지역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11.b.2 국가 전체와 지방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보유한 국가의 수	3 2	UNISDR UNISDR
11.c 현지 자재를 이용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회원국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 강화		11.c.1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고 자원효율적인 건축과 재건축에 배분되는 회원국에 지원되는 재정지원 규모	3	UN Habitat

출처: 김지현(2016, 발간예정), UN(2016)을 참고하여 재구성

4)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목표 12은 이행수단 3개의 목표를 포함한 11개의 목표와 1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소비·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이하 SCP)에 대한 개념은 시대별로 변천을 거듭하고 있으나 1994년 노르웨이 정부 주도로 개최된 오슬로심포지엄(Oslo Symposium on Sustainable Consumption)은 SCP를 “서비스와 제품의 사용이 기본적 요구에 부응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와 제품의 전생애주기에 걸쳐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미래세대의 요구 충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활동⁷⁾”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소비생산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개념으로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국제 정책의제로 언급이 되었으며 추후 리우+20 정상회담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 계획(10 Year Framework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지속가능소비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로, 특히 개도국 대상 역량강화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⁸⁾.

10YFP는 현재 6개 우선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 세계 정부 및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촉진하고 있는데 ① 지속가능 공공구매, ② 소비자 정보, ③ 지속가능 관광, ④ 지속가능 빌딩과 건축, ⑤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및 교육, ⑥ 지속가능 식품체계 등이다⁹⁾.

〈표 9〉는 지속가능소비 및 생산 내용을 상기 설명한 10YFP 6개 프로그램 중심으로 나머지 SDGs 목표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가 보여주듯이 지속가능소비·생산은 SDGs 전반에 걸쳐 관련이 있는 범분야 이슈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자 개개인 모두가 갖추어야 하는 보편적 생활목표라고 여겨진다.

7) *the use of services and related products, which respond to basic needs and bring a better quality of life while minimizing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toxic materials as well as the emissions of waste and pollutants over the life cycle of the service or product so as not to jeopardize the needs of further generations*

8) UNEP는 10YFP SCP의 이행을 총괄하는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며 개도국의 지속가능소비·생산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한다.

9) <http://www.unep.org/10yfp/Home/tabid/133135/Default.aspx>

〈표 9〉 지속가능소비 및 생산과 SDGs 목표와의 연관성

10 YFP 프로그램	SDGs 목표
지속가능 공공구매	8. 경제성장과 일자리
소비자 정보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지속가능 관광	8. 경제성장과 일자리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및 교육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지속가능 빌딩과 건축	7. 에너지 8. 경제성장과 일자리 11. 도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지속가능 식품체계	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3. 보건증진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출처: 10YFP Board (2014) 재구성

세부목표의 경우 전반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많은 언어와 모호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는 평가(ICSU and ISSC, 2015; 한국국제협력단, 2015:251)가 주를 이루고 있어 용어의 선정 및 정의에 있어서 재작업이 요구된다. 세부목표 중에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아(가령,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 달성’) 이의 지표 역시 목표달성을 평가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세부목표 12.3, 12.6.-8.의 목표는 이행수단에 가까운 목표로 보이는 등 이행목표와 이행수단 간의 모호함 역시 존재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15:248). 지표의 티어에 있어서도 13개 지표 중 오직 1개만이 티어 1으로 목표 달성을 모니터링하기에는 목표 12의 대부분의 지표에 대해 재검토 작업이 요구된다.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표 10)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세부목표		지표	Tier	DATA 기관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보강				
12.1	모든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10개년 계획(the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을 이행하되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선도수범하여 개도국의 개발단계와 역량을 고려	12.1.1 지속가능소비및생산(SCP) 국가이행계획 또는 국가정책에 우선순위 및 목표로 SCP가 추후화 되어 있는 국가의 수	미정	UNEP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달성	12.2.1 물질발자국 (MF) 및 일인당, GDP 당 MF 12.2.2 국내물질소비 (DMC)와 일인당/GDP 당 DMC	2 2	UNEP UNEP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의 전 세계적인 1인당 식량 낭비를 반감(半減)하고, 수확 단계를 포함한 생산 및 공급사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량 손실 감축	12.3.1 글로벌 식품손실 지수	3	FAO, UNEP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적 체계에 따라 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해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달성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 물 및 토양에 대한 배출을 상당히 감축	12.4.1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 각각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다국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의 수 12.4.2 처리방법당 일인당 유해폐기물, 유해폐기물의 처리비율	1 2	UNEP UNSD, UNEP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축	12.5.1 국가전체의 재활용비율(ton)	3	UNSD, UNEP
12.6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하고, 보고 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키도록 장려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3	UNEP, GRI
12.7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조달 관행을 추진	12.7.1 지속가능한 공조달정책과 실행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의 수	3	UNEP
12.8	2030년까지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생활방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접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함	12.8.1 (i) 글로벌 시민교육과 (ii) 기후변화교육을 포함한 지속가능개발 교육이 국가 (a) 교육정책, (b) 교과과정, (c) 교사 교육 및 (d) 학생 평가에 주류화 정도	3	UNESCO
12.a	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12.a.1 SCP 및 환경 친화적 기술관련 R&D 부문 개발도상국 지원량	3	UNEP, UNESCO, B
12.b	지역에서 현지리원을 창출하고 고유 문화·상품을 진흥하는 지속가능관광을 위해 지속가능성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추진	12.b.1 합의된 모니터링과 평가 기제가 있는 지속가능관광 전략 및 정책, 이행된 실행계획의 수	3	UNWTO
12.c	낭비적 소비를 조정하는 비효율적인 화학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는 등 나라별 사정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 이 밖에는 개도국의 투명한 수조·여간을 온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도국 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제를 개편하고 하모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법 등이 포함	12.c.1 GDP 단위 당(생산과 소비) 화학연료 보조금 액수 및 화학연료에 대한 총 국가지출 대비 화학연료 보조금 비율	3	UNEP

출처: 김지현(2016, 발간예정), UN(2016)을 참고하여 재구성

5) 목표 13: 기후변화

목표 13은 이행수단 2개의 목표를 포함한 5개의 세부목표와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식량, 물, 에너지 안보, 이주 등 지구적인 여타 이슈와 상호 연계되어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경제적인 피해로 가시화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중요 의제로 논의되어 왔다. IPCC(2014)는 관측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매우 크고 그 범위도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지구 시스템은 기후변화에 상당히 취약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지역과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동시에 효율적인 적응을 통해서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따라서 효율적인 적응정책의 구축이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후변화의 원인을 바로잡고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을 통하여 계속해서 논의하여 왔다. 이에 지난 2015년 12월, 제 12차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국제협약이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 목표는 MDGs의 환경목표 7의 세부목표 4가지 중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새로운 목표이나 SDGs 의제 14번째 문단에서 기후변화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국가의 능력을 훼손시키는 부정적 영향”라고 말하고 있다¹⁰⁾.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인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목표 13의 세부목표를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국가단위 정책, 전략, 부문별 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책을 포함시킬 것을 세부목표를 통해 제안하고 있으며 또한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선진국 개도국의 구분 없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을 세부목표에 직접 언급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후재원인 녹색기후기금의 기금동원목표 달성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다.

목표 13의 세부목표를 목표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세부목표가 목표치가 없이 모호하게 수사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어 따라서 이를 모니터링하게 될 지표 역시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지표의 경우 티어 1은 없으며, 티어 2가 2개, 티어 3이 4개로 목표 13

10) 14.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of our time and its adverse impacts undermine the ability of all countrie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의 방법론과 데이터의 가용성 여부에 대한 논의에 있어 내용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13.1.1, 13.1.2.의 경우에는 범위의 설정이 모호하여 목표를 모니터링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부목표와 지표 모두 용어의 정의와 범위 측면에서 내용적 보완이 필요하다.

〈표 11〉 목표 13: 기후변화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조치 시행			
세부목표	지표	Tier	DATA 기관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 역량 강화	13.1.1 국가 전체와 지방 재난위험감축전략을 보유한 국가의 수 13.1.2 인구 100,000당 재난의 영향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수	2 2	UNISDR UNISDR
13.2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전략 및 계획에 통합	13.2.1 식량생산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고 기후회복력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된 정책/전략/계획 (국가적응계획, 국가적으로 결정된 기여금, 국민소통, 격년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보고서 등을 포함)을 수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관해 논의해온 국가의 수 13.3.1 완화, 적응, 영향감소, 조기 경보 등을 초등, 중고등, 상급 교육과정에 통합한 국가의 수 13.3.2 완화, 적응, 기술이전, 개발 이행을 위한 제도, 시스템, 개인의 역량강화를 논의해 온 국가의 수	3 3 3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축 및 조기 경보에 관한 교육, 인식 증진, 인식 및 제도적 역량 증진			
13a 기후변화 완화 조치 및 이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개도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US달러 상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로 한 UN기후변화협약 약속을 존행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녹색 기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완전하게 운용	13.a.1 천만불 약정을 목표로 2020년부터 매년 동원되는 금액	3	OECD
13.b 여성, 청년 및 지역-소외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을 촉진	13.b.1 여성, 청년, 지방, 소외계층에 관심을 두면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 기술, 역량강화를 비롯한 특화된 지원에 받고 있는 최빈국 및 중소도서 개발도상국의 수	미정	

출처: 김지현(2016, 발간예정), UN(2016)을 참고하여 재구성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6) 목표 14: 해양자원

목표 14는 이행수단 3개의 목표를 포함한 10개의 세부목표와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안정, 산소발생, 영양소순환, 식량생산, 해안보존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 세계 인구의 75%가 바다와 해안근처에 거주한다는 측면에서 (ICSU and ISSC, 2015) 인류에게 중요하다. 생물다양성이나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다루어졌을 뿐 MDGs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분야였던 해양생태계가 이번 SDGs에서는 독립 의제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해양분야의 중요성이 새롭게 두각되어 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목표 14의 세부목표를 목표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목표들과 마찬가지로 몇 개의 세부목표는 목표치가 없이 모호하게 수사적인 표현으로 제시(가령 14.3. 모든 단계에서 과학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이를 해결,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군소도서국 및 최빈개도국의 경제이익 증진)되어 있어 따라서 이를 모니터링하게 될 지표 역시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지표의 경우 현재 상태는 10개의 지표 중 오직 2개만이 티어 1이며 나머지 8개가 티어 3이다. 이는 목표 14는 대부분의 지표가 방법론과 데이터 확보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목표 14의 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지표로 정책관련 지표(예, 보전지역 비율%), 스트레스지표(예, 전체 어획에서 IUU가 차지하는 비율%), 환경상태지표(예, 대양 열함류량의 변화, 해양산성화, 해안 망그로브 면적 등)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ICSU and ISSC, 2015).

〈표 12〉 목표 14: 해양자원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지표	Tier	DATA 기관
세부목표				
14.1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 및 영양염류 오염을 포함, 특히 육지 기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하게 감소		14.1.1 해안부영양화 지수 및 플라스틱 부유성 폐기물 농도	3	UNEP
14.2 2020년까지 해양 및 해안 생태계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그 복원을 위한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심각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해양 및 해안 생태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14.2.1 생태계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관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율	3	UNEP
14.3 모든 단계에서 과학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이를 해결		14.3.1 합의된 대표시료채취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 산도 (pH)	3	UNEP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획량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및 파괴적인 어업 관행을 종식시키고, 실행 가능한 시간 내에 적어도 생물학적 특성으로 결정되는 최대 지속가능한 양을 생산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산 자원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 시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내의 어류자원 비율	1	FAO
14.5 2020년까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해양 지역의 최소 10%를 보존		14.5.1 해양 보호구역 범위	1	UNEP-WCMC
14.6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어업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며, 이와 같은 보조금의 신규 도입을 자체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한 효과적 인 특별·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함을 인정)		14.6.1 국가별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기제들을 이행 차원에서 진척수준	3	FAO
14.7 2030년까지 수산인 양식업 및 관광의 지속가능관리 등을 통하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군소도서국 및 최빈개도국의 경제 이익을 증진		14.7.1 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 및 모든 국가에서 GDP에서 지속가능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3	
14.a 해양 건강성을 증진하고 개도국, 특히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 개발에 대한 해양 생물다양성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정부간해양위원회 기준과 지침(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Criteria and Guidelines on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을 고려하여, 과학적 지식 증대, 연구역량 개발 및 해양기술 이전		14.a.1 전체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분야 연구에 배정되는 비율	3	UNEP
14.b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 자원 및 시장으로의 접근성 확대		14.b.1 국가별 소규모 영세 어업의 접근권(access rights)을 인지도 보호하는 법/규제/정책/제도의 도입 차원에서의 진척 수준	3	FAO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158항에서 합의된 대로, 해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제공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반영된 비와 같은 국제법이행을 통해 해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		14.c.1 해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법/정책/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비와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해양관련 장치들을 비준, 적용,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의 수	3	UNEP, FAO, LO, etc

출처: 김지현(2016, 발간예정), UN(2016)을 참고하여 재구성

7) 목표 15: 육상생태계

목표 15는 이행수단 3개의 목표를 포함한 12개의 세부목표와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다양성, 육지생태계는 생태 서비스 제공 및 인류에게 기본적인 물질 서비스 가령, 식량, 물,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인류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정신적 건강, 안전, 문화다양성, 사회관계를 다양하게 하는 요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생물다양성과 육지생태계는 인류 웰빙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작용하는 이슈이며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생태계 관리가 요구된다(ICSU and ISSC,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한계수용으로 인해 생물종의 멸종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우려에 힘입어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채택되어 생물다양성 보존과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전 지구적 노력이 강조되었다.

생물다양성 목표는 이미 MDGs 목표 7의 두 번째 세부목표(7.b.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킴)에 명시되어 있었다(〈표 2〉 참조). 대부분의 지역 및 대륙이 2000년 대비 2014년에는 생태계보전지역이 증가하였으나(UN, 2015) 이는 생물다양성 감소율의 유의적인 축소를 달성했다고 보이는 수치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목표달성 실패의 아쉬움이 SDGs 목표 15에서 목표의 세분화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부목표와 지표를 보면, 생태 시스템별로 생물 다양성과 서식처의 보존, 복구, 복원 및 외래 생물종 유입의 차단 및 방어를 목표로 수립하고 있는데 특히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존과 야생 동식물 등에 대한 보존을 중심으로 지표가 설정되어 있다. 목표 15는 MDGs에 비해 세분화되어 그 목표가 잘 표현되어 있지만 보존해야 할 육상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농·산·어촌 주민을 고려한 세부목표나 지표가 충분하게 설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지적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5). 또한 현재 제안된 지표는 다루는 지역 범위가 넓은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수준에서도 사용되고 통용되고 지표가 포함되어 지역의 생태계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지식, 가령 원주민 고유지식 및 전통지식이 지표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당사자, 시민사회, 그리고 원주민공동체와의 참여가 촉구된다.

세부목표에 있어서 ICSU and ISSC(2015)은 목표 15.2와 15.3을 하나로 15.a, 15.b, 15.c를 하나의 세부목표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¹¹⁾ 역시 다른 목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세부 목표 자체에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바, 다소 모호하고 수사적인 목표에 대한 검토와 정확하게 표현된 세부목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의 재설정이 요구된다.

11) ICSU and ISSC(2015)는 15.2와 15.3을 '사막화, 홍수, 가뭄을 전 지구적으로 막고, 이로 인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하기 위하여 척박하고 퇴화된 생태계, 특히 산림의 15%를 보존 혹은 복원으로, 15.a, b, c를 통합하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 복원,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고,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지속가능한 생계를 영위하는데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모든 자원의 원천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잘 운용하여 이를 현저하게 증가시킴'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표 13) 목표 15: 육상생태계

세부목표	지표	Tier	DATA 기관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호와 복원 및 지속가능한 수중에서의 사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5.1 2020년까지 국제협정 하의 의무에 따라 육지·내륙 담수생태계 및 그 서식지, 특히 산림 습지·산-간조지의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	15.1.1 총 육지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1.2 생태계 유형, 벌 보호구역에 의해 보호되는 육상 및 담수 생태계 주요 장소 (sites)의 비율	1 1	UNEP-WCMC FAO
15.2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의 이행을 진흥하고, 산림벌채 중지시키며,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신규 조림과 재조림을 장려하여 증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진척도	3	UNCCD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가뭄·홍수의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한 황폐화된 토지와 토양을 복구하며, 토지황폐화 없는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	15.3.1 전체 육지 중 황폐화된 토지의 비율	3	UNEP-WCMC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에 필수적인 편이 제공 여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 보전 보장	15.4.1 산악지역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범주 15.4.2 Mountain Green Cover Index	1 2	FAO IUCN
15.5 자연서식지의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행동을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지시키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 보호 및 멸종 예방	15.5.1 Red List Index	1	CBD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genetic)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 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진흥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진흥	15.6.1 공평하고 공정한 혜택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한 국가의 수	3	UNODC, CITES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제품 수요와 공급을 다룸	15.7.1 밀렵되거나 불법으로 포획되어 거래되는 야생동물의 비율	1	UNEP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 외래종 유입 예방과 함께 이들이 육지·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우선순위를 관리하거나 근절	15.8.1 급속히 확산되는 외래종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법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배분한 국가의 비율	3	UNEP-SCBD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적·지역적 계획, 개발 과정, 빈곤 감축 전략 및 회계에 통합	15.9.1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타겟2 (Aichi Biodiversity Target 2)에 따른 국내 목표 수립 진척상황	3	OECD, UNEP, B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모든 원천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하고 중대하게 훼손	15.a.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공공지출 및 ODA	Tier / 2	
15.b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모든 원천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상당한 자원을 동원하고, 보존·재조림 목적을 포함하여 개도국들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	15.b.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공공지출 및 ODA	Tier / 2	
15.c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계 기회 추구 역량 증대 등을 통하여 보존 종의 밀렵·밀매 방지 노력에 대한 글로벌 지원을 강화	15.7.1 밀렵되거나 불법으로 포획되어 거래되는 야생동물의 비율	1	

출처: 김지현(2016, 발간예정), UN(2016)을 참고하여 재구성

V. 결론

2015년은 국제사회에서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해였다.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의 채택과 함께 환경·경제·사회를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개발 아젠다인 SDGs가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SDGs는 2016년부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1992년 UNCED부터 시작되었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SDGs는 Rio+20에서 논의된 환경이슈가 세분화되어, 기후변화 및 자연보호에 대한 논의를 포함, 기후변화 및 생태계보호 관련 목표체계를 강화하여 7개의 목표에 확장되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17개 목표 중에 7개 목표와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환경이슈가 차지하는 중요정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MDGs에서 다루지 못한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자원 및 오염문제, 산림이슈, 사막화, 토지 황폐화 등의 주제의 세부목표 제시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새로운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SDG에서 제시된 환경 관련 7가지 목표 고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환경이슈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의 세부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지표를 고찰을 통하여 현재 제시된 세부목표와 이행지표가 향후 15년간 환경규범으로서 현재 문제를 잘 대변하고 해결책을 효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였다.

SDGs는 MDGs의 빈곤퇴치에 집중되었다는 한계점을 내용적으로 사회발전, 경제영역, 환경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한계를 보완하였다. 하지만 많은 주제를 포함하는 의미 있는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된 내용이 방대하여 실제 MDGs와 같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실제로 MDGs는 그 목표와 세부목표만으로도 그 목표지와 내용이 명확하고 쉽게 이해되어 이를 모니터링하는 지표에 대해 해석의 어려움이 없었던 반면 SDGs의 경우 목표에 있어서 모호한 표현과 서술적이 묘사가 많아 목표 자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상당하게(substantially) 감소’ 등과 같은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목표를 이해하는데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 더러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7개의 환경목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제기된 문제로는 목표 12의 경우처럼, 이행수단과 이행목표가 혼합되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목표 6, 15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제시된 세부목표를 통합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처럼 세부목표에 대해 용어의 사용 검토 및 세부목표 통합

여부 결정 등과 같은 전반적인 검토와 재작업이 요구된다.

세부목표의 수정과 함께 이를 모니터링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티어 2와 3인 당장 측정이 어려운 지표 혹은 아직 방법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표는 SDGs 성과를 측정하기에 당장부터 어려움이 따른다. 티어 1의 적은 분포는 SDGs 17개 목표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환경분야에서 티어 2와 3의 분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 조사자료의 연계를 통한 2차 자료 생산, 행정자료 혹은 빅데이터 사용, 지구 관측자료 및 공간정보 사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는 있으나(통계청, 2016) 지속가능성 평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자료의 가용성과 시계열적 모니터링이 중요하므로 측정가능성과 지속성을 일차적인 기준으로(고재경, 2014) 사용가능한 지표를 살펴보아야 한다.

SDGs는 비록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개발관련 제도와 방향을 이끄는 주요 규범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SDGs는 양적으로 이슈영역이 팽창한데 비해, 질적으로 이를 세분화하는 세부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지표에 대해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SDGs가 국제사회에서 전세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주요 규범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SDGs 세부목표와 이행지표에 대한 재검토와 재작업이 요구된다.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참고문헌〉

- 고재경. 2014.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방안” 연구보고서.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 관계부처합동. 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세종: 환경부
- 김지현. 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SDGs 초안분석” 『개발과 이슈』 제 19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_____. 2016. “SDGs 지표 확정과 의의” 『개발과 이슈』 제 25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발간예정)
- 김태균 · 이성훈 · 허태욱 · 황원규. 2015. “유엔의 Post-2015 개발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주요 내용과 의의”. 서울: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 통계청.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니터링을 위한 글로벌 지표 마련”. 『국가통계연구소식』 vol.9. 대전: 통계청
- 임혜숙. 2015. “자원순환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보고서.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5. “2015년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방의제21의 역할” 『제 23차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집』. 광주: 푸른광주21협의회
- 한국국제협력단.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홍은경. 2013. “Post-2015 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분야 ODA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IPCC. 2014. “Summary for Policymakers,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available at http://ipcc-wg2.gov/AR5/images/uploads/WG2AR5_SPM_FINAL.pdf (접속일: 2016.7.15.)
- KEI 2015.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KEI 포커스 vol.3, No.1.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SDGMUN. 2015. “2016-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 종합 보고서.” SDGMUN 자료수집보고서. 서울: SDGMUN

UN. 20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available at [http://www.un.org/millenniumgoals/2015_MDG_Report/pdf/MDG%202015%20rev%20\(July%201\).pdf](http://www.un.org/millenniumgoals/2015_MDG_Report/pdf/MDG%202015%20rev%20(July%201).pdf) (접속일: 2016.7.15.)

_____. 2016.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 Indicators, draft as of March 24.” available at <http://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3/Provisional-Proposed-Tiers-for-SDG-Indicators-24-03-16.pdf> (접속일: 2016.7.5.)

10YFP Board. 2014. “Potential contribution of the 10YFP Programme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A paper from the Board of the 10 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CP (10YFP) with the support of the 10YFP Secretariat”, available at <http://www.unep.org/10yfp/Portals/50150/10YFP%20board%20paper.pdf> (접속일: 2016.7.15.)

ICSU and ISSC. 2015. “Review of target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science perspective.” Paris: ICSU, available at <http://www.icsu.org/publications/reports-and-reviews/review-of-targets-for-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the-science-perspective-2015/SDG-Report.pdf> (접속일: 2016.7.5.)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